

藥物配伍에 따른 效能의 變化와 方劑에 關한 研究

尹 用 甲*

I. 緒 論

麻黃은 溫經通絡하는 桂枝와 配伍되면 桂枝湯이 되어 發汗作用이 麻黃 單味일때보다 훨씬 強化되지만 寒涼한 石膏가 配伍되면 越婢湯에서와 같이 發汗作用은 弱화되지만 利水作用이 생기고 香附子는 四物之劑와 配伍되면 調經種王湯에서와 같이 開鬱調經하지만 葛根 蘇葉 등과 配伍되면 香蘇散에서와 같이 發散 解表를 돕는다. 大黃은 芒硝 枳實 등과 配伍되어야 承氣湯類로 泄下作用이 強해지지만 桃仁 當歸尾 등과 配伍되면 鷄鳴散이 되어 推陳致新과 祛瘀作用을 主로 하게 된다. 黃芪는 防風 白朮과 配伍되면 玉屏風散에서와 같이 補氣固表하여 止汗作用이 있지만 穿山甲 皂角刺와 配伍되면 透膿散에서와 같이 托裏透膿하고 金銀花 天花粉 白芷 등과 配伍되면 托裏消毒飲에서와 같이 托瘡生肌한다. 甘草는 芍藥과 配伍되면 芍藥甘草湯이 되어 緩和作用이 增大되지만 桔梗과 配伍되면 甘桔湯이 되어 桔梗과 더불어 咽喉部の 腫痛을 治하는 消炎作用을 하게 되며 黑豆와 配伍되면 甘豆湯이 되어 解毒作用을 하게 된다. 한편 升麻는 柴胡와 配伍되면 小量으로써도 升舉 升提作用이 있어 補中益氣湯에 活用하고 있지만 葛根 白芍과 配伍되면 升麻葛根湯이 되어 陽明經의 熱을 解하기 때문에 溫疫을 治하면서 解肌 透疹하는 效能이 있으며 黃芪 人蔘 白朮 등과 配伍되면 益胃升陽湯에서와 같이 下陷된 胃氣를 升陽시키고 下血을 그치게 하는 作用을

한다. 즉 麻黃 香附子 大黃 黃芪 甘草 升麻 등의 配伍된 方劑의 主治에서 보는 바와같이 配伍되는 藥物에 따라서 그 主效能이나 主治作用이 달라지며 이것을 方劑構成에 活用하여 既成處方이 만들어지게 됨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藥物配伍와 方劑構成과는 아주 밀접한 關係가 있으며 이와 같은 關係를 파악하여 方劑의 君臣佐使, 藥物加減의 必然性, 方劑系統性 등을 관찰하고 方劑를 分析하여 立方의 本旨를 이해하게 되면 복잡하게 構成된 復方 合方 加味方 등에 대한 올바른 方解를 할 수 있게 되며 한편으로는 臨床活用の 精確한 좌표를 제시하여 보다 높은 治療效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著者는 藥物配伍에 따른 方劑의 變化關係를 研究하여 報告합니다.

II. 本 論

1. 七情配伍와 方劑

七情이란 두가지 藥物들이 서로 配合될 때 나타날 수 있는 藥物의 相互關係를 말하는 것으로 <神農本草經>과 <本草綱目>에는 “七情合和”라하여 七情에 대하여 說明하고 있으며 單行 相須 相使 相惡 相畏 相反 相殺 등의 일곱 가지 類形을 말한다.

*圓光大學校 韓醫科大學 方劑學教室

表1 單行處方活用例

方劑處方	構成藥物	用量	主治	效能	備考
國老膏	大甘草	一兩	治懸癭	瀉火	生能瀉火 炙溫作
單鹿茸湯	鹿茸	一兩	難產最奇	催產	胞系於腎
獨參湯	人參	六兩	氣虛血脫	大補回陽	回陽
豆淋酒	黑豆	一升	治產後風	利水	清酒之同用
愈風散	荊芥炒末	三戈	治產後中風	發散	發散外感
橘皮一物湯	橘皮	一兩	治氣結	理氣	
露薑飲	生薑	四兩	痰癆	祛痰	露一宿
露薑養胃湯	生薑	四兩	久痞	祛痰除痞	露一宿合 養胃湯

1) 單行과 관련된 方劑

한가지 藥物만으로써 다른 藥物의 配伍없이 病症에 使用되는 경우를 말하며 本草學의 氣味를 그대로 活用하기 때문에 복잡한 病證이나 病勢가 急하게 變할 때는 活用할 수 없으므로 民間療法이나 自然療法으로 轉換된 경우가 많다.

單行은 表1에서 보는 바와 같이 藥量이 一般의인 常用量보다 대단히 多게 增大시켜서 사용한 것이 特徵이며 藥物의 特定 效能이나 主治 만을 治療에 活用하고 있다.

2) 相須配伍에 關聯된 方劑

表2 相須 配伍의 關係된 方劑의 活用

處方名	藥物構成	配伍比率	主治	備考
失笑散	蒲黃·五靈脂	1:1 (各 等分)	治產後兒枕 臍腹痛 欲死	活血祛瘀止痛
回生散	藿香·陳皮	1:1 (5戈·5戈)	治霍亂吐瀉	藿香·陳皮의 芳香性理氣 安胃止吐瀉作用
神香散	丁香·白豆蔻	1:1 (各 等分)	治嘔噦腸滿痰 飲膈噎	丁香 白豆蔻의 芳香性安胃 止嘔鎮靜作用
生薑橘皮湯	生薑·橘皮	2:1 (8兩·4兩)	治乾嘔 手足厥冷	生薑과 橘皮의 溫中止嘔 祛痰理氣作用
枳朮丸	枳實·白朮	1:2 (一兩· 二兩)	治痞 消食 健 脾 消痞	白朮의 健脾作用과 枳實의 消痞作用
縮泉丸	烏藥·益智仁	1:1 (各 等分)	治脛氣不足小便 頻數 一日百餘次	烏藥과 益智仁의 膀胱氣化作用
甘豆湯	甘草·黑豆	1:1 (各 5戈)	解百藥 百物毒	黑豆와 甘草의 解毒作用
梔殼湯	梔子·豆豉	七枚·半合	治汗下後 虛煩 不眠	梔子와 豆豉의 瀉火鎮靜作用
芎歸湯	當歸·川芎	1:1 (5戈·5戈)	治產前後諸病 惡露血崩不止	當歸 川芎의 活 血祛瘀作用

處方名	藥物構成	配伍比率	主治	備考
佛手散	當歸·川芎	6:4 (6戈·4戈)	治縮胎易產(臨 月服之)	當歸 川芎의 子 宮筋收縮作用
實陽散	山藥·黃米	一兩·一合	治久痢不分 赤白	山藥과 黃米의 補脾陰 및 整腸 作用 用此換出黃黃
芷貝散	白芷·貝母	1:1 (各 等分)	治乳房結核	白芷 消炎止痛 作用 貝母의 祛痰消 腫作用
雙補丸	熟地黃·兔絲子	1:1 (各 八兩)	平補氣血 不 燥不熱	熟地黃 兔絲子의 補陰補精
茸附湯	鹿茸·附子	1:1 (各 2.5戈)	治氣精血虛耗 潮熱盜汗	補精 補陽作用

相須配伍라 함은 두가지 藥物이 配合될 때 氣味와 藥性이 비슷한 藥物들이 配合됨으로써 藥效가 相乘되거나 相加되는 경우를 말하며 方劑構成에 가장 많이 應用되는 配伍이다.

相須配伍는 神農本草經과 本草綱目에도 “相須者 同類而不可雜 常用相須者良”라 하였듯이 配伍되는 藥物의 氣味에 藥性 主治 效能 등이 비슷하거나 相互作用에 의하여 그 主作用이 相乘의으로나 相加의으로 強化되거나 增大되는 配伍를 말하며 相須에 關聯된 方劑를 조사해보면 藥物構成比는 1:1인 경우가 多고 使用藥量은 同量이거나 等分인 경우가 特徵이다.

3) 相使에 配伍와 關聯된 方劑

相使란 두가지 藥物이 配伍될 때 한 藥物의 主作用을 다른 藥物이 補助하여 그 主作用이나 主效能을 增大시켜주는 配合를 말하며 두가지 藥物은 서로 主從의 關係를 갖게되며 方劑구성상 相須配伍와 더불어 많이 活用되고 있는 配合關係이다.

表3 相使配伍와 關聯된 方劑의 活用

處方名	藥物構成	配伍比率	主治	備考
交感丹	香附子·白茯苓	4:1 (1斤·4兩)	治諸氣鬱滯 能水火升降	香附子의 理氣開鬱 白茯苓의 安神益智 作用
甘桔湯	桔梗·甘草	7:3 (3.5戈·1.5 戈)	治少陰客寒 咽痛	桔梗의 治咽喉部 消炎作用을 甘草의 瀉 火作用으로 助한다.
白虎湯	石膏·知母	5:2 (5戈·2戈)	治陽明經病 汗多煩渴	石膏의 陽明熱을 瀉하 는 作用을 知母의 苦 寒한 氣味가 助한다.

相	調胃承氣湯	大黃:芒硝 4:2 (4支:2支)	治痞滿燥實 瀉熱結下燥 尿	大黃의 瀉下作用을 芒硝의 緩瀉이 助한다. (大黃非芒硝而不泄)
	芍藥甘草湯	芍藥:甘草 2:1 (4支:2支)	治一切腹痛	芍藥의 平肝止痛作用을 甘草의 緩和作用으로 助한다.
	當歸補血湯	黃芪:當歸 5:2 (5支:2支)	治氣虛血脫	黃芪의 補氣作用을 當歸의 補血로 助한다.
	香連丸	黃連:木香 4:1 (1兩:2.5支)	治赤白膿血 下痢 脹痛及諸痢	黃連의 治病作用을 木香의 調氣로 助한다.
使	夏枯草散	夏枯草:甘草 6:1 (6支:1支)	治瘰癧	夏枯草의 破癥散結作用을 甘草의 治癰作用이 助한다.
	冷附湯	大附子:生薑 半枚:十片	瘧疾無過 痰實 脾弱 停于胸膈	附子의 溫熱之性을 辛溫한 生薑이 助한다.

相使는 “我之佐使”라하여 두가지 藥物이 配伍될 때 主從關係로 配合되므로 主藥物에 대한 治療作用을 配伍되는 다른 藥物이 補助하여 主藥에 대한 效能을 增大시켜주거나 相乘시켜주는 配伍이다. 따라서 表에서 보는 바와 같이 藥物의 氣味나 效能에서는 主從관계로 配伍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構成比率에서도 相須처럼 等分이나 同量이 아닌 多量과 小量의 大小의 特徵이 있는 配伍比率로 되어 있다.

4) 相畏와 相殺에 關係되는 方劑

“相畏者 受彼之制也 相殺者 制彼之毒也” “若有毒宜制 可用 相畏 相殺者”라하여 두가지 藥物이 配伍될 때 相對藥物의 毒性을 制하여 없애주거나 혹은 相對藥物로부터 制約을 받는 경우를 말하여 주로 毒이 있거나 藥性이 峻烈한 藥物을 方劑로 活用할 경우에만 使用하는 配伍方法이다.

表4 相畏 相殺에 關係되는 方劑의 活用 例

處方名	藥物構成	構成比率	主治	備考
相畏相殺	小半夏湯	半夏:生薑 一升:半斤	治飲停心下 嘔吐心下痞悶	生薑이 半夏毒을 없애줌(相殺) 生薑이 半夏의 燥性을 없애줌(相畏)
	二陳湯	半夏:生薑 2:1 (2支:1支)	痛治痰飲	上同
	六一散	滑石:甘草 6:1 (六兩:一兩)	治中暑 吐瀉下痢 止渴除煩	甘草가 滑石의 寒滑한 性質을 緩化
	連附六一湯	黃連:附子 6:1 (六兩:一兩)	治熱鬱 胃胸膈	附子가 黃連의 寒冷한 性味를 줄임
	倉卒散	梔子:附子 49枚:1枚	治腰腹間急痛	梔子의 寒冷한 性味를 附子의 溫熱之性으로 緩化시킴

表4에서 보는 바와같이 半夏의 峻烈한 燥性과 毒性을 生薑汁이 解毒하고 燥性을 緩和시켜 燥濕祛痰作用을 人體에 무리없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대표적인 基本方劑가 小半夏湯 및 二陳湯이다. 한편 六一散에서는 滑石과 甘草가 6:1로 配伍되어 있는데 滑石의 寒滑한 性味가 暑月의 煩渴 等 傷暑病을 治하기도 하지만 과도한 寒滑한 性味는 人體의 陽氣를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小量의 甘草를 配伍시켜 寒滑한 性味를 緩和시킨다. 이와 비슷한 예로 連附六一湯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는데 黃連의 寒冷한 性味를 附子가 小量配伍되어 緩和시켜주도록 한다. 따라서 相畏 相殺은 한 藥物의 독특한 個性이나 主效能이 人體에 害가 없도록 順化시키거나 복용후 副作用이 생기지 않도록 制約시키는 藥物을 配伍하여 活用하는 것을 말한다.

5) 相惡 相反

“相惡者 奪我之能也 相反者 兩不相合也”라하여 配伍되는 相互藥物들이 서로의 藥性을 無效化시키거나 副作用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相惡나 相反 配伍는 方劑構成에서는 일반적으로 活用하는 예는 드물다.

6) 藥物配伍의 相互作用

지금까지 藥物의 七情 配伍를 中心으로 配伍 藥物 상호간의 作用을 종합해보면 相須와 相使에서와 같이 상호협조적인 關係를 通하여 主效能이나 藥效를 相乘시키거나 相加시키는 경우와 相畏나 相殺같이 配伍되는 藥物이 相互 寒熱 升降 動靜 補瀉 氣血 收散 剛柔 潤燥 等の 相對的 關係로 配合되어 藥效를 조절하는 경우와 黃芩과 白朮이 配伍되어 安胎하듯이 藥物이 配伍될 때 전혀 새로운 作用으로 전환되어 藥效를 나타내는 경우와 少陽病에 柴胡를 舟楫之劑로는 桔梗을 使用하듯이 配伍되는 藥物의 主治作用 主效能이 發病部位나 病所에 이르도록 引經報使하는 경우 등으로 區分하여 說明할 수가 있다.

2. 方劑와 藥物의 配伍關係

어떤 藥物이 갖고 있는 本草學的인 主治나 效能은 상당한 多樣性이 있어서 書誌學的 측면에서 보면 歷代本草書마다 조금씩 다르게 記錄하고 있어서 어느 시대 어떤 書籍을 參考하느냐에 따라 많은 治療의 差異를 나타낼 수 있다. 그러나 어떤 藥物은 單味로 治療에 活用하는 경우가 드물고 몇 가지 혹은 몇 종류의 藥物을 利用하여 方劑構成原則에 따라 處方を 構成하고 이 方劑를 使用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藥物 상호간의 配伍가 어떤 양식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며 이것이 어떻게 方劑와 關聯性이 있는가를 把握하고 研究하는 것이 方劑의 基本을 확립하는 중요한 根據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것을 把握하고 理解하는 것만이 수많은 既成處方에 대한 올바른 方解와 分析을 할 수 있게 되며 客觀적이고 精確한 治療效果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本論文에서는 麻黃 香附子 黃芪 甘草 柴胡 등을 中心으로 方劑構成과 藥物의 配伍關係를 살펴보고자 한다.

1) 甘草의 配伍와 關聯된 方劑

表5 甘草의 配伍와 關聯된 方劑의 活用例

處方名	構成內容	主治	甘草의 作用	備考
六一散 天水散 益元散	滑石六兩 甘草一兩	解暑 清熱 吐瀉解毒	滑石의 寒滑한 性質을 甘草가 緩和시킴	
甘桔湯	桔梗35 甘草15	清利咽喉 腫痛	桔梗의 清利咽喉 消腫作用을 甘草의 清熱瀉火作用으로 助함	同甘草爲 舟楫之劑
芍藥甘草湯	芍藥40 甘草(炙)20	治一切腹痛	芍藥의 平肝舒筋하는 作用과 甘草의 緩和作用이 合하여 鎮痛 鎮痙의 效能이 발휘됨.	
甘豆湯	黑豆 甘草各等分	解百藥毒	解毒作用 強化	
夏枯草散	夏枯草60 甘草10	治瘰癧	治瘰癧瘡作用을 輔助	
保元湯	人蔘20 黃芪10 甘草(炙)10	治氣虛痘疹	溫補 益氣作用을 輔助	
甘麥大棗湯	甘草一兩 小麥三合 大棗七枚	治婦人藏燥	小麥의 鎮靜收斂作用을 大棗 甘草가 助함	

*아라비아 숫자는 錢을 표시함.

表5에서 보는 바와같이 甘草는 配伍되는 藥物에 따라 여러 가지 效能의 變化를 가져보게 되며 그 效能의 變化를 方劑에 應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六一散(天水散 益元散)에서는 甘溫熱 甘草가 寒滑한 滑石의 藥性を 緩和시켜주므로써 滑石의 解暑 解毒 清熱 作用이 人體에 副作用을 끼치지 않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되며 甘桔湯에서는 甘草가 桔梗의 清利咽喉 祛痰 生能瀉火作用을 輔助하여 咽喉部の 消痰作用에 관여하는 效能을 발휘한다. 芍藥甘草湯은 白芍藥의 舒筋和陰 및 平肝止痛과 甘草의 緩急止痛하는 作用을 하게되며 甘豆湯에서는 黑豆와 함께 解毒作用을 한다. 한편 甘草는 單味로 國老膏라하여 癰疽나 懸雍에 活用하는 경우가 있듯이 夏枯草散에서는 夏枯草의 消癰作用을 助하여 瘰癧에 活用한다. 또한 甘麥大棗湯에서는 浮小麥의 鎮靜收斂作用과 大棗의 和營作用을 助하여 婦人의 精神科 疾患인 藏燥症에 活用되므로써 甘草가 鎮靜시키는 效能을 助하여 줌을 알 수 있다. 四君子湯 保元湯 等에서는 補益之劑인 人蔘 黃芪와 配伍되면 補益을 助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炙溫作)

따라서 甘草는 配伍되는 藥物에 따라 寒冷한 藥性を 溫性으로 緩和시켜주는 作用, 消炎(瀉火)作用, 鎮痛 鎮痙作用, 解毒作用, 治瘰癧消癰作用, 補益作用(炙溫作), 鎮靜收斂을 助하는 作用이 있음을 考察해 볼 수 있다.

2) 香附子 配伍와 關聯된 方劑

表6 香附子 配伍와 關聯된 方劑의 活用例

處方名	構成內容	主治	香附子의 作用	備考
四製香附丸	香附子	月候不調	調經	製法 ①薑汁 鹽水 浸炒 ②童便 浸
七製香附丸		結成癥瘕	調經 散癥	③醋炒 ④山梔子 同炒
莎芎散	香附子四兩 川芎二兩	治 衄血	止血	粉末二戈茶清 調下 不以時
良附丸	香附子 良薑各等分	理氣散寒止痛	理氣止痛	
交感丹	香附子一斤 白茯苓四兩	治諸氣鬱滯 能水火升降	理氣開鬱	蜜丸彈子大

處方名	構成內容	主治	香附子的作用	備考
消滯丸	香附子一兩 黑丑二兩 五靈脂一兩	治酒食水氣 痞滿 脹腫積痛	破積消滯 止痛	
香蘇散	香附子 蘇葉2.0 蒼朮1.5 甘草0.5 葱二本	治四時傷寒 頭身痛 寒熱傷風傷濕	理氣解表	

表6에서 보는 바와같이 四製香附丸 七製香附丸은 香附子로 法製나 修治를 通하여 月經不順이나 月經不調로 因한 癥瘕를 治하는 方劑이다.

그러므로 香附子는 調經하는 效能이 있는 藥物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理血하는 四物湯을 合하여 活用하면 더욱 效果의이다. 한편 莎芎散은 衄血을 治하는 方劑인데 香附子 川芎으로만 構成되어 있으므로 香附子나 川芎과 더불어 止血作用에 關여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良附丸에서는 香附子가 理氣하고 良薑으로 散寒시키므로 生冷之物이나 食滯로 因한 痛症을 없게 해주는 方劑이므로 香附子가 脾胃의 기능을 正常的으로 運轉케 하는 效能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香砂六君子湯 香砂平胃散 等에도 活用하고 있다. 香附子 白茯苓으로 構成된 交感丹은 諸氣鬱滯와 水升火降이 잘 되지 않을 때 活用하는 代表的인 基本方劑인데 여기에서 香附子는 精神的인 鬱滯를 풀어주는 理氣開鬱하는 效能이 있다. 調經種玉湯에서도 交感丹의 一部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精神的 鬱滯를 月經不順 및 不孕에 活用한다. 香附子가 蒼朮 蘇葉 葱 等과 配伍되면 香蘇散에서와 같이 理氣解表作用이 있어 四時傷寒 傷風傷濕에 活用하며 香附子가 五靈脂 黑豆 等과 配伍되면 酒食水毒으로 因한 脹滿 消積을 治하는 破積 消滯의 效能이 있다. 따라서 香附子는 調經散癥 行氣止血 理氣止痛 理氣開鬱 理氣解表 破積消滯하는 效能을 나타낸다.

3) 黃芪의 配伍와 關聯된 方劑

表7에서 보는 바와같이 黃芪는 配伍되는 藥

物에 따라 主治와 效能을 달리하여 그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즉 當歸補血湯에서 黃芪는 “氣行則血行 氣行則血隨 氣者血之母”의 原理에 따라 갑자기 血虛失血 症狀이 생기면 補血하는 藥과 補氣하는 藥을 配伍하여 立方을 하여야 圓滑한 效果를 發揮할 수 있게 되므로 補血하는 當歸와 配伍되어 補氣生血하게 된다. 表虛自汗에 活用하는 玉屏風散에서 黃芪는 防風 白朮

表7 黃芪의 配伍와 關聯된 方劑의 例

處方名	構成內容	主治	黃芪의 作用	備考
當歸補血湯	黃芪5.0 當歸2.0	血虛發熱	補氣生血	
玉屏風散	黃芪1.2 白朮2.5 防風1.2	表虛自汗	補氣固表	
補中益氣湯	黃芪1.5 人蔘 白朮 甘草1.0 陳皮0.5 升麻 柴胡0.3	治中氣下陷	補氣升提	
十全大補湯	黃芪 肉桂 加人蔘湯	氣血俱虛	大補元氣	
透膿散	黃芪4.0 當歸2.0 皂角刺1.5 穿山甲1.0	治癰疽	排膿消腫	
黃芪內托散	黃芪 金銀花6.0 當歸 澤瀉 白朮 天花粉3.0 川芎 皂角刺2.0 甘草1.0	治癰疽	解表消腫	
補陽還伍湯	黃芪4.0 當歸尾2.0 赤芍1.5 地龍 川芎 桃仁 紅花1.0	治中風	補氣活血祛瘀	
防己黃芪湯	黃芪5.0 防己4.0 白朮3.0 甘草2.0 薑三 棗二	氣虛風水浮腫	行氣利水	
防己茯苓湯	黃芪 防己 白茯苓 桂枝2.0 甘草2.0			
黃芪龜甲散	黃芪0.75 龜甲 天門1.0 知母 地骨皮 秦朮 白茯苓 赤芍 柴胡0.75 桑白皮 半夏 甘草0.5 紫苑 生地黃0.4 薑三 棗二	治虛勞陰虛熱	滋陰清熱	

等과 配伍되어 補氣固表作用을하여 衛氣를 튼튼하게하여 風寒邪를 막아주고 止汗作用을 하게 한다. 이 경우 龍骨 牡蠣 浮小麥 等 收斂作用이 있는 藥物을 配伍하면 더욱 效果적인 方劑가 된다. 中氣下陷에 活用하는 補中益氣湯에서나 氣血俱虛에 活用하는 十全大補湯에서 黃芪의 역할은 人蔘과 더불어 大補元氣하고 補氣升提하는 效能을 발휘하게 되며 癰疽나 排膿消腫에 活用하는 透膿散 黃芪內托散 托裏消毒飲

에서 黃芪는 皂角刺 穿山甲 金銀花 天花粉 等과 配伍되면 托瘡生肌하여 상처를 빨리 아물게 하고 상처의 새로운 肉芽組織을 形成케하여 治療에 도움을 준다. 氣虛中風에 活用하는 補陽還伍湯에서 黃芪는 活血祛瘀하는 藥物들과 配伍되어 그 效能이 補氣化瘀通絡하는 方向으로 強化되어 腦血栓 腦梗塞 等으로 인한 麻痺症이나 語澁에 活用함을 알 수 있다. 한편 黃芪가 利水滲濕하는 防己 等과 配伍되면 氣虛浮腫이나 風水浮腫에 活用되는데 代表的인 方劑가 防己黃芪湯과 防己茯苓湯이다. 즉 黃芪가 防己나 白朮 等과 配伍되어 行氣利水 治浮腫하는 主效能을 발휘하게 된다. 또한 慢性消耗性 疾患이나 虛損 症狀이 오래 지속되면 虛2熱이 發生하며 이러한 경우에 黃芪鼈甲散을 活用하는데 黃芪가 鼈甲이나 知母 地骨皮 等과 配伍되면 滋補清熱 退虛熱 骨蒸熱 等を 治하는 主效能을 발휘하게 된다. 이와같이 黃芪의 主治나 效能이 配伍되는 藥物類에 따라 補氣血, 固表, 升提, 托瘡生肌, 活血祛瘀, 利水滲濕, 退虛熱 等の 여러 가지 方向으로 轉換되어 活用함을 考察해 볼 수 있다.

4) 麻黃 配伍와 關聯된 方劑

表8 麻黃 配伍와 關聯된 方劑의 活用例

處方名	構成內容	主治	麻黃의 作用	備考
麻黃湯	麻黃 _{3.0} 桂枝 杏仁 _{2.0} 甘草 _{1.0}	傷寒外感表實	發汗解表止咳	
三拗湯	麻黃 杏仁 甘草 _{4:1.5}	外感風寒咳嗽	止咳定喘	
烏藥順氣散	麻黃 烏藥 陳皮 _{1.5} 川芎 白芷 白礬 _蠶 桔梗 枳殼 _{1.0} 乾薑 _{0.5} 甘草 _{0.3}	一切風疾	順氣覺醒	
靈仙除痛飲	麻黃 _{1.0} 赤芍 _{1.0} 防風 荊芥 羌活 獨活 威靈仙 白芷 蒼朮 黃芩 枳實 桔梗 葛根 川芎 _{0.5} 當歸尾 升麻 甘草 _{0.3}	肢節腫痛	治風寒濕痺	
麻黃加朮湯	麻黃 _{1.5} 白朮 _{2.0} 杏仁 _{1.5} 桂枝 甘草 _{1.0}	濕家疼痛	利濕止痛	
越婢湯	麻黃 _{3.0} 石膏 _{4.0} 甘草 _{1.0} 薑 _{1.5} 棗 _{2.0}	風水症	利水宣肺	

麻黃湯은 傷寒 外感 表實에 活用하는 代表的인 方劑로써 麻黃이 桂枝와 配伍되어 發汗 解

表 發散作用이 強化되어 外感邪氣가 汗을 通하여 排出하는 汗法에 活用되는 基本 配伍이다. 麻黃이 杏仁과 配伍되면 止咳 平喘하는 作用이 強化되어 麻黃이나 杏仁을 單味로 사용했을 때 보다 한층 강한 止咳 定喘作用이 나타남을 實驗을 통하여 立證하고 있다. 麻黃의 主成分은 에페드린인데 이 成分은 기침을 가라앉히는 作用이 매우 강하다. 그러나 麻黃에서 逐出한 에페드린을 鎮咳藥으로 服用할 때는 一日에 75mg을 服用하는 것이 常用量이다. 그러나 麻黃湯中의 麻黃 안에 含有된 에페드린 量은 불과 20mg정도밖에 안된다. 그런데도 麻黃湯이 鎮咳效果를 내는 것은 麻黃과 杏仁이 配伍되어 相乘效果를 나타내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麻黃湯에서 麻黃은 發汗 解表하고 止咳 定喘하는 主效能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桂枝를 除하면 三拗湯이 되는데 이 方劑는 發汗 解表作用보다는 止咳 定喘하는 作用 쪽으로 方向을 轉換한 處方이라 할 수 있다. 즉 麻黃과 杏仁의 配伍로 因한 咳嗽에 活用성이 높은 處方이 된다. 한편 一切風疾에 活用하는 烏藥順氣散에서 麻黃은 發汗 止咳 定喘作用과는 전혀 다른 覺醒作用을 나타내는데 麻黃이 理氣 順氣하는 藥物과 配伍되면 大腦의 흥분성을 強化시키는 作用을 하고 強心시키는 效果를 갖게 된다. 따라서 中風 初期에 覺醒시킬 目的으로 일정시간 活用하며 小兒夜尿症에 麻黃之劑를 活用하는 경우도 여기와 關聯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麻黃이 祛風 濕熱하는 藥物들과 配伍되면 肢節腫痛하는 關節炎 症狀이나 류머치즘에 많이 活用하게 되는데 代表的인 方劑가 靈仙除痛飲이다. 즉 麻黃이 羌活 防風 獨活 威靈仙 黃芩 赤芍 當歸 川芎 等과 配伍되어 祛風濕熱 腫痛 或赤 或發熱 할 때 活用하는 基本 方劑인데 이경우에 麻黃은 止咳 定喘하거나 順氣 覺醒하는 作用보다는 風濕熱을 治하는 作用 쪽으로 그 特性을 나타내게 된다. 麻黃이 白朮 蒼朮 等과 配伍되면 麻黃

加朮湯에서와 같이 利濕止痛作用이 있어 濕家の痛症에 活用하며 麻黃이 寒한 石膏와 配伍되면 發汗解表作用은 弱화되고 利水宣肺하며 水導를 通調하므로 風水浮腫에 活用한다. 따라서 麻黃은 配伍되는 藥物에 따라 發汗解表, 止咳定喘, 順氣覺醒, 祛風寒濕痺, 祛濕止痛, 利水消腫 等の 效能을 발휘한다.

5) 柴胡의 配伍와 關聯된 方劑

柴胡가 君藥으로써 黃芩 半夏 人蔘 甘草와 配伍되면 小柴胡湯이 되어 寒往寒熱 胸脇苦滿 心煩喜嘔 默默不欲飲食 等 半表半裏의 少陽病을 治하는 基本方이 된다. 이와 같은 개념으로써 活用하는 方劑가 柴梗半夏湯과 柴胡四物湯이다. 柴梗半夏湯은 小柴胡湯과 瓜蒌實丸 桔梗枳殼湯의 合方으로 柴胡 黃芩으로 胸脇 及 少陽經病을 治하며 少陽經의 熱을 解하는 效能을 발휘한다.

入하여 發熱이 甚할 때 活用하는 方劑로써 柴胡 黃芩이 甚한 熱을 解하는 效能이 있다. 그 다음으로 柴胡가 白芍과 配伍되면 肝氣鬱結을 治하며 이에 관한 代表的인 方劑가 逍遙散이다. 逍遙散은 肝氣鬱滯로 인한 히스테리 月經不順 惡心煩熱 不眠 不安 焦燥 食欲不進 無力感 心身症 等 다양한 症狀을 治하게 되는데 이 경우 柴胡와 白芍藥이 配伍되어 疏肝解鬱 效能을 발휘하기 때문이다.

또한 柴胡가 升麻와 配伍되면 中氣下陷을 治하는 補中益氣湯에서와 같이 升提升擧하는 效能이 있어 少陽과 陽明의 升陽之氣를 발양시킨다. 한편 柴胡가 羌活 獨活 等 祛風止痛하는 藥物과 配伍되면 敗毒散에서와 같이 外感風寒邪를 去하고 解熱하므로써 四時傷寒 感冒를 治하는 祛風清熱하는 效能이 있다. 따라서 柴胡는 配伍되는 藥物에 따라 少陽病을 治하는 作用과 疏肝解鬱 祛風清熱 等の 效能을 발휘하게 된다.

表9 柴胡의 配伍와 關聯된 方劑의 活用 例

處方名	構成 內容	主 治	備 考
小柴胡湯	柴胡 _{3.0} 黃芩 _{2.0} 半夏 _{1.0} 人蔘 _{1.0} 甘草 _{0.5}	少陽半表半裏 寒熱往來	柴胡와 黃芩이 配伍되어 少陽經의 病을 治함
柴梗半夏湯	柴胡 _{2.0} 瓜蒌仁 半夏 黃芩 枳殼 桔梗 _{1.0} 青皮 杏仁 _{0.8} 甘草 _{0.5}	治痰熱盛 胸痞脇痛	上同
柴胡四物湯	柴胡 _{2.0} 生地黄 川芎 赤芍 當歸 黃芩 _{1.0} 人蔘 半夏 甘草 _{0.5}	治產後發熱 及熱入血室	柴胡와 黃芩이 寒熱往來를 治함
逍遙散	柴胡 白芍 白朮 茯苓 當歸 麥門冬 _{1.0} 甘草 薄荷 _{0.5}	治肝氣鬱結 月經不順 惡心煩熱	柴胡 白芍이 配伍되어 疏肝解鬱시킴
敗毒散	柴胡 前胡 羌活 獨活 桔梗 枳殼 赤茯苓 川芎 甘草 _{1.0}	四時傷寒感冒	柴胡가 羌活 獨活과 더불어 解熱祛風
補中益氣湯	黃芪 _{1.5} 人蔘 白朮 甘草 _{1.0} 當歸 陳皮 _{0.5} 升麻 柴胡 _{0.3}	治中氣下陷 補中益氣	升麻 柴胡가 升擧 升提

또한 柴胡四物湯은 小柴胡湯과 四物湯의 合方으로써 產後에나 月經是 熱이 子宮(血宮)에

Ⅲ. 考 察

藥物配伍에 대한 理論의 根據를 제시한 부분이 “七情”이기 때문에 七情에 대한 方劑學的 考察은 상당히 重要한 의미를 갖고 있다. 單行은 조사한 바에 의하면 <表1>에서 보는 바와 같이 國老膏 單鹿茸湯 獨蔘湯 橘皮一物湯 豆淋酒 等 藥物單味の 用量을 一般 常用量의 大략 10배에 해당되는 大量을 사용을 하였으며 單一 藥物의 특정 效能만을 方劑에 活用하고 있는 것이 特徵이다.

相須 配伍는 方劑活用に 가장 많이 應用된 配伍로써 2~3가지 藥物로 構成된 基本方劑에서 이러한 配伍를 찾아 볼 수 있다. 失笑散에서 보면 蒲黃과 五靈脂는 모두 活血祛瘀止痛의 效能이 있는 藥物로써 이러한 效능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1:1로 相須配伍하여 產後瘀血로 인한 急性腹痛(兒枕痛)이나 瘀血腹痛에 빈번히 活用하고 있다.

回生散 神香散 生薑橘皮湯에서는 薑香과 陳皮, 丁香과 白豆寇, 生薑과 橘皮 等 藥性이 모두 芳香性이 있고 安胃 止嘔 理氣의 效能이 있는 藥物들로 配伍된 方劑로써 위장관의 正常的인 機能의 회복을 도와주는 方向으로 作用하여 鎮靜效能을 增加시켜주는 安胃 止嘔의 基本方이 된다.

枳朮丸에서는 枳實과 白朮이 配伍되어 健脾와 消痞效能이 合해진 脾胃의 기능을 強化시켰고, 縮泉丸에서는 烏藥과 益智仁이 모두 膀胱의 氣化作用을 보강하여 小便의 頻數症을 治療하고, 甘豆湯에서는 甘草와 黑豆가 모두 解毒作用이 있으니 두 가지 藥物이 配伍되면 그 解毒作用이 더욱 強化된다.

芍歸湯에서는 當歸의 活血과 川芎의 行血作用이 5:5로 等分 配伍되어 活血行瘀效能을 強化하므로써 産後 諸般 惡露 不止에 活用한다. 그러나 當歸 川芎을 6:4의 비율로 配伍하면 佛手散이 되어 子宮筋의 收縮力을 增大시켜주는 催産作用이 있다. 實腸散에서는 山藥과 黃米의 補脾陰 및 整腸作用을 통하여 久痢를 治하고, 芷貝散에서는 白芷와 貝母의 消炎止痛 및 祛痰消腫作用이 상호 보강되어 乳房의 結核을 治療한다.

雙補丸은 熟地黃과 兎絲子의 補陰補精效能을, 茸附湯은 鹿茸 附子의 補精 補血 補陽하는 效能을 增大시키는 配伍로 活用하는 方劑이다. 즉 <表2>에서 보는 바와 같이 相須配伍를 利用한 方劑들은 모두 비슷한 效能을 가지고 있는 藥物들이 配伍되며 그 效能을 增大시키고 있으며 配合比率는 거의 等分(1:1)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同類而不可離”原則이나 “等分配伍”의 比率原則을 지키는 方劑들임을 알 수 있다.

相使配伍에 관련된 方劑를 <表3>에서 보면 交感丹은 香附子 白茯苓으로 構成된 方劑인데 香附子의 理氣開鬱하는 效能을 主로하고 白茯苓의 安神 益智하는 效能이 香附子의 主效能을 助하여 4:1로 相使配伍하면 諸氣鬱滯와 水升火降을 治하는 基本方이 된다.

桔梗의 咽喉部의 化膿性 炎症을 治하는 效能

을 主로하고 甘草의 瀉火效能이 桔梗의 效能을 도와서 7:3의 比率로 相使配伍되면 甘桔湯이 되어 風寒邪에 因한 咽喉腫痛을 治하는 基本方이 된다. 白虎湯에서는 石膏와 知母가 5:2의 比率로 配伍되는데 石膏의 陽明熱은 瀉하는 作用을 知母의 苦寒之味가 이를 助하여 陽明經病을 治하고 汗多 煩渴을 治하는 方劑가 된다.

芍藥甘草湯에서는 芍藥의 平肝止痛和陰의 主效能을 甘草의 緩和作用이 助하여 2:1로 配伍되면 一切 腹痛 및 痛症을 治하는 鎮痛 鎮痙의 基本方이 된다. 當歸補血湯에서는 補氣效能이 있는 黃芪와 補血效能이 있는 當歸가 5:2의 比率로 配伍되어 “氣行卽血行”하고 “氣者血之母”라하여 氣血이 虛脫된 危證을 治하는 方劑로 活用된다. 즉 血脫이 심할 때 補氣를 主로하고 補血을 使로하면 더욱 강한 補血效果를 얻을 수가 있게 된다.

한편 治病效能이 있는 黃連과 調氣效能이 있는 木香을 4:1의 比率로 配伍하면 香連丸이 되는데 이 方劑는 赤白膿血의 모든 痢로 인한 痛症을 治하는 方劑가 된다. 즉 黃連의 治病效能을 木香의 調氣效能이 助하여 또한 破癥散結效能이 있는 夏枯草와 治癰 瀉火效能이 있는 甘草를 6:1의 比率로 配伍하면 夏枯草散이 되는데 이는 瘰癧을 治하는 基本方이다. 즉 黃連의 治病效能을 더욱 強化시켰으며 夏枯草의 破癥散結하는 效能을 甘草가 이를 도와서 그 效果를 더욱 增大시키는 配合이 된다.

따라서 相使配伍는 두가지 藥物이 配伍될 때 한가지 藥物의 主效能을 다른 藥物이 이를 助하여 그 效能을 增大시키는 配合으로 配合比率는 等分配伍가 아닌 大小配合比率를 가지고 있는 것이 特徵이며 “我之佐使”의 意味와 相通한다.

相畏와 相殺의 配伍와 관계된 方劑로 보면 <表4>의 小半夏湯 二陳湯에서와 같이 半夏의 峻烈한 燥性과 人體에 미치는 毒性을 生薑汁이 解毒시키고 緩和시켜 祛痰效能을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게 한다.

한편六一散에서는 滑石의 寒滑한 성질을 甘草의 溫性으로 緩和시키고 解毒作用을 助하므로서 滑石의 解暑, 治煩渴, 解毒作用을 人體에 副作用없이 治할 수 있도록 하는 方劑가 된다.

連附六一湯에서는 黃連 附子が 6:1로 配伍되어 溫熱한 附子が 黃連의 너무나 강한 寒冷한 性味를 완화시키고 倉卒散에서는 溫性의 附子が 梔子의 강한 寒性을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하도록 配伍되어 方劑에 使用하고 있다. 즉 한 藥物의 과도하게 강한 藥性を 制約하여 복용할 때 人體에 害가 없도록 할 때 活用하는 配伍임을 알 수 있다.

이밖에도 藥物상호간의 寒熱 升降 動靜 補瀉 氣血 收散 潤燥 剛柔 等の 相對的인 效能으로 서로를 調節 制約하는 配伍가 있으며 白朮과 黃芩이 配伍되어 安胎作用을 하거나 當歸와 川芎이 配伍되어 催產作用을 하는 등 전혀 새로운 作用이 나타나는 配伍가 있으며 少陽病에 柴胡를, 陽明頭痛엔 白芷를, 舟楫之劑로는 桔梗을 사용하듯이 病所에 따라 引經報使하는 藥物을 配伍하는 方法 等도 있다.

그 다음으로 同一한 藥物이라 하더라도 配伍되는 藥物의 特性이나 主作用에 따라 그 效能의 變化가 있음을 파악하고 이것을 方劑에 活用하는 例를 조사하여 藥物의 상호작용의 系統性을 研究하고 方劑와의 상호연관성을 파악하고 方劑解釋의 根據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먼저 <表5>에서와 같이 甘草의 配伍와 관련된 方劑 活用に 관하여 조사해보면六一散(益元散 天水散)에서는 甘草가 滑石의 寒滑한 性味를 緩和시키는 作用을 주로 하고 甘桔湯에서는 甘草의 瀉火效能이 桔梗의 清利咽喉效能을 도와서 清熱 瀉火하는 效能을 발휘하고 芍藥甘草湯에서는 甘草가 緩和效能이 芍藥의 平肝舒筋效能을 助하여 一切 腹痛을 治하는 鎮痛 鎮痙의 基本方이 된다. 甘豆湯에서는 甘草가 黑豆의 解毒作用을 도와서 그 效能을 증대시키고 夏枯草散에서는 甘草의 治癰하는 效能이 夏枯草의 散結消腫하는 作用을 助하여 癰癤을 治하게 되고

甘麥大棗湯에서는 浮小麥의 鎮靜收斂作用을 大棗와 甘草가 助하여 婦人科 精神病 中 한가지인 藏燥症을 治하는 效能을 발휘한다. 한편 四君子湯 保元湯에서와 같이 人蔘 黃芪 等の 補益之劑와 甘草가 配伍되면 溫補하는 效能을 補助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甘草는 配伍되는 藥物에 따라 緩和, 清熱消痰, 解毒, 鎮痛鎮痙, 鎮靜收斂, 補益, 治癰疽 等の 다양한 治療效果를 발휘하거나 補助하는 作用을 하게 됨을 考察해 볼 수 있었다. 그러므로 上記한 作用을 하기 위해서는 그 목적에 꼭 알맞는 藥物은 配伍가 필요함을 逆說的으로 강조한 것이며 이와 같은 配伍로 方劑構成原則을 확립하게 되면 그만큼 方劑構成을 理解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香附子是 원래 開鬱調經을 주로 하는 藥物이지만 이러한 調經之劑로 活用할 경우에는 <表6>에서 보는 바와같이 修治나 法製를 통하여 四製·七製香附丸으로 活用하거나 四物之劑를 合하여 應用한다. 그러나 莎芎散에서와 같이 川芎과 같이 配伍되면 衄血을 治하는 止血作用을 하게 되며 良附丸에서와 같이 良薑과 配伍되면 理氣散寒止痛效能이 있어 寒腹痛이나 生冷之物에 滯하였을 때 活用하는 基本方이 된다.

한편 香附子が 安神益智하는 白茯神과 配伍되면 諸氣鬱滯를 治하고 水升火降을 助하는 交感丹이 되며, 香附子が 黑丑, 五靈脂 等과 配伍되면 破積消滯止痛效能이 있어 酒, 食, 水氣로 痞滿症이 있거나 腫脹하고 積聚가 생겨서 痛症이 있을 때 活用하는 消滯丸이 된다. 또한 香附子が 外感發散之劑인 蘇葉 蒼朮 葱白 等과 配伍되면 理氣解表作用이 있어 四時傷寒 傷風 傷濕으로 頭痛 身痛 寒熱이 있을 때 活用하는 香蘇散이 된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香附子是 四物湯과 合方하거나 四製·七製香附丸으로 活用할 때는 調經消癥하는 效能이 있으나 川芎과 配伍되면 止血效能이 발휘되고, 良薑과 配伍되면 理氣散寒止痛하고, 白茯神과 配伍되면 氣滯나 氣鬱을 解하

고, 黑丑, 五靈脂와 配伍되면 破積行滯止痛하고, 蘇葉 蒼朮 葱白 등과 配伍되면 理氣解表效能을 效果의로 발휘하므로 莎芎散, 良附丸, 交感丹, 消滯丸, 香蘇散 등의 方劑에 活用하고 있다.

黃芪도 역시 配伍되는 藥物에 따라 그 效能과 主治가 變化되어 方劑에 活用됨을 알 수 있다. <表7>에서 보는 바와같이 黃芪가 當歸와 5:2의 比率로 配伍되면 當歸補血湯이 되어 血虛發熱에 쓰이는데 이 경우에는 黃芪로 補氣하여야 補血作用이 원만히 이루어 질 수 있으므로 먼저 氣를 補하는 黃芪를 當歸와 配伍시켜 活用하므로 더욱 強化된 補血效果를 얻을 수 있다.

한편 黃芪가 防風 白朮 등과 配伍되면 玉屏風散이 되어 表虛自汗에 活用하는 基本方이 되는 데 여기서 黃芪는 補氣固表效能을 발휘하며, 黃芪가 補益甘濕之劑인 人蔘 白朮 甘草와 配伍되면 中氣下陷을 升提하고 甘溫而除熱하는 補中益氣湯이 되어 補氣升提하며, 十全大補湯에서는 人蔘과 더불어 元氣를 大補하는 效能을 발휘한다.

또한 黃芪가 穿山甲, 皂角刺, 金銀花, 天花粉 등과 配伍되면 排膿消腫生肌效能이 발휘되어 癰疽를 治하고 托瘡生肌하는 透膿散, 黃芪內托散 등의 方劑에 君藥으로 活用된다. 黃芪가 活血祛瘀之劑인 當歸尾, 赤芍, 川芎, 地龍, 桃仁, 紅花 등과 配伍되면 補氣 活血祛瘀效能이 발휘되어 補陽還伍湯과 같이 氣虛로 인한 瘀血이 있는 中風의 治療 및 後遺症에 活用한다.

그밖에도 黃芪가 防己, 白茯苓 등과 같은 利水之劑와 配伍되면 氣虛消腫에 活用하는 防己黃芪湯, 防己茯苓湯이 되어 行氣利水效能을 強化시켜준다. 黃芪가 鼈甲, 天門冬, 知母, 地骨皮, 柴胡, 生地黄 등과 配伍되면 黃芪鼈甲散이 되어 虛勞로 인한 虛熱을 내려주는 滋陰清熱하는 效能을 발휘한다. 즉 黃芪는 配伍되는 藥物에 따라 補氣血, 固表止汗, 補氣升提, 托瘡生肌, 活血祛瘀治風, 利水滲濕, 滋陰清熱하는 效能을 발휘함을 알 수 있다.

麻黃은 溫經하는 桂枝, 止咳定喘하는 杏仁 등

과 配伍되면 麻黃湯이 되어 發汗解表, 止咳定喘하는 效能을 발휘하지만 여기에서 溫經하는 桂枝를 去하고 法製를 하지 않고 麻黃不去根節하고 杏仁不去皮尖하고 甘草不炙하면 三拗湯이 되어 發汗解表力은 弱화되고 止咳定喘作用만 強化되는 效能을 발휘하여 風寒咳嗽에 活用한다.

한편 麻黃이 烏藥, 陳皮, 桔梗, 枳殼 등 理氣順氣之劑와 白僵蠶, 川芎, 白芷 등 鎮靜之劑와 配伍되면 順氣覺醒하는 效能이 있는 烏藥順氣散으로 活用되며, 羌活, 獨活, 蒼朮, 威靈仙, 白芷, 荊芥, 防風 등 祛風濕痺之劑와 配伍되면 關節의 發熱腫痛을 治하는 靈仙除痛飲으로 活用된다. 또한 麻黃이 白朮 蒼朮 등 祛濕之劑와 配伍되면 利濕止痛하는 效能이 발휘되므로 麻黃/加朮湯에서 이를 活用하고 있다.

麻黃은 溫經通絡하는 桂枝와 配伍되면 發汗發散作用은 強化되지만 寒性の 石膏와 配伍되면 發汗 發散作用은 弱화되고 宣肺利水하고 通調水道하므로 利水消腫作用이 強化되어 風水浮腫에 活用하는 越婢湯이 된다. 즉 麻黃도 配伍되는 藥物에 따라 發汗解表, 止咳定喘, 順氣覺醒, 祛風濕痺, 祛濕止痛, 利水消腫 등의 效能이 발휘됨을 <表8>에서 알 수 있다.

柴胡는 黃芩과 配伍되어 君藥으로 多量이 사용되는 경우는 小柴胡湯, 柴梗半夏湯, 柴胡四物湯 등에서와 같이 少陽經病 혹은 半表半裏症 寒熱往來를 治하지만 柴胡가 白芍, 當歸, 白茯苓 등과 常用量으로 配伍되어 君藥이 되면 疏肝解鬱시키는 基本方인 逍遙散이 되어 肝氣鬱滯를 治하는 效能을 발휘하며 柴胡가 羌活, 獨活 등 祛風濕之劑 및 桔梗, 枳殼, 川芎 등의 理氣之劑와 配伍되면 解熱祛風止痛作用이 있는 敗毒散이 되어 四時傷寒 感冒에 活用된다. 그러나 補中益氣湯에서와 같이 小量으로 升麻와 配伍되면 升提升舉效能이 있게 된다.

즉 柴胡는 配伍되는 藥物 및 使用量에 따라 <表9>에서 보는 바와같이 少陽을 治하거나 疏肝解鬱하거나 清熱祛風하거나 寒熱往來를 治하거나 升舉升提하는 등의 效能을 발휘한다.

총괄적으로 종합하면 어떤 藥物이든지 그 藥物이 方劑로 活用될 때는 配伍되는 藥物에 따라 각기 특정한 效能을 발휘하고 그 발휘되는 效能을 여러 方劑에 活用하고 있음을 考察해 볼 수 있다.

IV. 結 論

藥物의 七情配伍와 甘草, 香附子, 黃芪, 麻黃, 柴胡의 藥物配伍에 따른 方劑의 活用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結論을 要約할 수 있다.

1. 相須配伍에 관련된 方劑는 構成藥物이 性味와 效能이 비슷하고 配合比率도 1:1 및 等分임을 알 수 있다.
2. 相使配伍에 관련된 方劑는 構成藥物의 效能이 主從關係로 配伍되어 있고 構成比率도 大量 少量으로 차이가 크게 치우침을 알 수 있다
3. 相畏 相殺에 관련된 方劑는 構成藥物의 特定效能을 制約하여 副作用이나 毒作用을 없애 주려는 配伍를 活用하고 있다.
4. 甘草, 香附子, 黃芪, 麻黃, 柴胡 등이 配伍된 方劑를 통하여 配伍되는 藥物에 따라서 그 藥物의 效能이 일정한 方向으로 變化되어 발휘되고 있으며 이러한 效能의 變化를 특정한 方劑構成에 活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方劑構成 藥物의 配伍原則을 理解하고 構成藥物의 配伍에 따른 效能의 變化를 파악하는 것은 올바른 方劑의 解釋과 臨床活用に 매우 중요한 關鍵이라 할 수 있다.

參 考 文 獻

- 1) 康秉洙·金永坂：臨床配合本草學，永林社，1994.
- 2) 康舜洙：바른 方劑學，1996，서울 大星文化社.
- 3) 久保道德，漢方の 臨床藥學，명진출판사，서울 1986.
- 4) 南京中醫學院 1993，中醫方劑學大辭典，人民衛生出版社.
- 5) 邪錫波：傷寒論臨床實驗錄，1984. 中國 天津科學技術出版社.
- 6) 蘇대英：中醫臨床常用對藥配伍，1984 北京，人民衛生出版社.
- 7) 神農本草經，中華民國67年，台北文光圖書有限公司.
- 8) 申載鏞：方藥合編處方解說，서울 成輔社，1988.
- 9) 梁基相：漢藥의 配合과 應用，서울 傳統醫學研究所，1993.
- 10) 양金和：中醫方劑通釋，1995，河北科學技術出版社.
- 11) 王昂 醫方集解，1984 서울 大星出版社.
- 12) 王淸任：醫林改錯，庚子年昌德書店.
- 13) 龍榮輯：方劑學，1986. 中國療寧科學技術出版社.
- 14) 游士勳：實用中醫方劑學，中華民國72年，台北，樂群出版公司.
- 15) 尹吉榮：東醫臨床方劑學，1985，서울 명진출판사.
- 16) 李大琦：中醫方劑學，成都，1988 四川科學技術出版社.
- 17) 李時珍：本草綱目，1982，北京人民衛生出版社.
- 18) 李載熙：圖說漢方論療要方，1987. 서울 醫學研究社.
- 19) 張仲景：傷寒論，中華民國63年台北，台聯國風出版社.
- 20) 陳維述：藥對論，1984，南京安徽科學技術出版社.
- 21) 陳湖祖：中醫治法與方劑，1975，人民衛生出版社.
- 22) 許 浚：東醫寶鑑，1969. 南山堂.

- 23) 許鴻源：圖解常用漢方方劑，1980.台北 華安出版社.
- 24) 黃度淵：脈證方藥合編，1986. 서울 南山堂.